



28회 봄国展, 大統領賞에 建築部門

“建築機能十知覺心理→形態美”—劉熙俊

금년도 28회 봄国展(서예·공예·사진·건축)의 大統領賞은 건축부문의 “건축기능+지각심리→형태미”를 출품한 劉熙俊씨(漢陽大교수)가 수상하였다. 이는 1961년 10회 国展의 姜錫元씨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文公部長官賞에는 “乙支路再開發計劃”을 출품한 朴弘씨(中央大교수)·金光燮씨(同大学院生)가 수상. 特選 2점, 入選 9점. 出品은 총 25점. 이번 봄国展에는 既成作家의 참여가 많아 수확이 컸다는評. 5/1~5/30까지 서울 德壽宮內 現代美術館에서 展示.

3 층 联立住宅에 太陽熱利用 義務化

動資部, 建設部와 협의中

動力資源部는 태양열 주택의 보급촉진과 에너지 소비절약방안의 일환으로, 3 층 联立住宅은 태양열 시공을 의무화한다는 방침 아래, 관제당국과 협의중. 20일 动資部에 의하면 태양열 시공에는 평당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연립주택의 용적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長期低利 貸金融資의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25평이하 国民住宅, 호화内裝등 규제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規則제정—建設部

건설부는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5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의하면 전용면적 25평이하 国民住宅에 대한 내装材 규제, 窓戶와 처마통등의 규격품 사용, 中央集中式 煙房의 集團住宅에 热量計 설치, 전용면적 35평이하 住宅의 浴室은 1개로 제한, 25평이하 住宅의 침실(15~6평) 거실(4평이하)·부엌(1.5평) 크기 제한, 공동주택의 계벽은 두께 25cm 이상의 이중벽 또는 흡음벽으로 제한한다. 窓戶 규격품·熱量計 설치 등은 10월 20일부터 적용.

海外建設 無実績業体 免許취소 등

海外建設促進法施行令改正案 마련키로

건설부는 20일 일정기간 동안 海外建設実績이 없는 海外建設業체의 면허를 모두 취소하고 建設都給順位 기준으로 海外建設工事 受注의 下限線을 설정하여 国產機資材의 使用義務化 등을 골자로 하는 海外建設促進法施行令 改正案을 마련, 빠른 시일 안에 경제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하였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海外建設業체가 128社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14社가 아직까지 受注実績을 올리지 못하고 業体間過當競爭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라이온스호텔 大火

外国人等 5명 死亡, 30명 負傷

4월 22일 하오 5시 40분경, 서울 총무로 2가 라이온스호텔에서 신관 5층의 개조공사중 작업인부의 담배불이 건축자재에 引火, 신관 5층 및 구관 4층 200여평을 연소한 뒤 8시 30분경 鎮火했다. 복잡한 건축구조가 진화작업에 방해가 된데다 有毒ガス가 迷路처럼 깊은 통로를 배워, 投宿客 3명(외국인 2명 포함)이 질식사하고, 2명은 헬리콥터 구조중 추락사하였다.

이 호텔은 지난 12月부터 3차례의 消防診斷時 ▲ 自動火災探知設備 受信盤 작동불능 ▲ 계단실 煙氣感知器 불비 ▲ 屋内消火栓燈 미비 ▲ 通路誘導燈 미비 ▲ 스프링클러設備 미비 ▲ 防炎처리 미비 등이 들어났으나改善되지 않은 상태에서 発火한 것이다.

韓·日建設協力協議会 3次총회

工事共同受注·技術交流·提携방안 협의

한·일간 설협력협의회 제 3 차 총회(23~24일)가 열려, 한국 45명, 일본 38명이 참석하였다. 崔鍾煥 한국측 위원장은『 지난 1년간 韓國의 建設生産額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39億1,820萬弗 77년 대비 29.5%의 實質成長을 보였으나 住宅產業에 힘입은 것이고, 国民總生產의 8.8%에 불과하다. 또 78년 海外工事受注量은 85億弗에 이르고 있으나 国内外의 모든 여건에 비추어 技術과 頭腦를 중심으로 하는 質的成長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말하였다. 日本의 水野 위원장은『78년도 日本의 建設投資額은 77년 대비 15% 증가한 2200億으로 国民總生產의 20.8%였는데 자유세계에서 美國 다음가는 규모이며 海外工事는 受注額 베이스로 25億弗을 기록, 77년 대비 40% 증가이나 国内工事의 1.1%에 불과하다』고

서울汝矣島에 50층 빌딩 추진

10월 중 着工 예정—新東亞그룹

新東亞그룹은 현재 設計中에 있는 社屋을, 오는 10月中 서울 汝矣島에 總工事費 350億을 투입 着工할 예정인데 그 규모는 地上50層 地下3層이다.

都心 高層빌딩 建築抑制 풀기로

충분한 駐車·綠地空間 확보조건—서울시

정부는 者都圈人口疎散 및 交通難 解消를 위해 추진하려던 서울都心地의 高層빌딩 抑制方案을 완화, 현행 建蔽率·容積率을 서울市에서 조정하고, 駐車·綠地空間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건물·지역에 대해서는 建築許可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高層빌딩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서 事務室 不足現象과 貨貸料상등 등 都心地再開發事業의 不振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建築主들에 막대한被害를 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高位層의 내력을 받아 내주중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月初 잠정적으로 工事中止今이 내렸던 大韓教育保険빌딩, 大韓火災海上保險, 韓-銀行本店등 20층 이상 3개 高層빌딩을 곧 工事再開되고 서울中区乙支路 1. 2街地区 東大門로터리중 7개 再開發地域도 高層빌딩 新築이 허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消防施設 未備呪 拘束

벌금형 위주 처리 지양—檢察

서울地 은 25일 서울 라이온스호텔 火災를 계기로, 앞으로 대형 火災事件이 발생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지금까지 罰金 처리를 해왔던 것과는 달리 拘束搜查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주요 대상 건물의 消防施設 集中團束에 나섰다.

新築建物 01 地域별로 規制

都心 15층 이하, 江南20층 까지—서울시

서울시는 26, 人口集中과 交通人口誘発要因을 억제하기 위해 首都圈問題 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高層建物의 층수를規制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허가 받은 建築物(大韓教育保険 등 3개 건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관 없이 허가내용대로 건물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一般建築物에 대한 規制

구	분	層	數	容積率	建蔽率
	幹線 路邊	15층	670%	40%	
	기 타	12 "	670 "	45 "	
	江北 地域	15 "	800 "	50 "	
4 大門밖	江南 地域	20 "	1,00 "	60 "	
	汝失島地域	20 "	1,000 "	50 "	

※특정 지역은 2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規制

구	분	層	數	建蔽率
江	南	12층 (10층)		18% (18%)
江	北	10층 (5층)		18% (20%)
不良住宅再開發地		10층 (5층)		50% (50%)

주: 팔호밖은 平地帶, () 안은 丘陵地의 경우

또 서울시는 서울駅 ~ 退溪路 ~ 光熙陸橋 ~ 東大門 ~ 苑南洞로터리 ~ 中央廣場 ~ 獨立門 ~ 西大門로터리 ~ 서울駅을 연결하는 4大門안 지역에 대해서는 호텔·遊業所·카페·百貨店등의 新築과 기존건물의 用途變更를 일체로 금지키로 했다.

都市計劃 찾은 變更 통제

5년내 못 바꾸게 基準마련—建設部

건설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都市計劃을 변경함으로써 住民被害와 予算浪費가 심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번 결정한 都市計劃은 원칙적으로 5年内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都市計劃变更統制基準」을 마련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建築資材管理法 制定 추진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不良建築資材의 生產 및 流通을 억제하기 위해 建築資材管理法(가칭)을 마련하여 9月 定期国会에 제안키로 하는 한편 이달 안에 建築資材協會를 발족키로 하였다.

利川에 組立式 建材工場 着工 예정

三煥企業, 佛까뮈社와 제휴, 10月 가동

26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三煥企業은 組立式 建材 生產工場을 위해 京畿 利川에 매지 15,700여 평을 마련했으며, 15億을 투입, 5月 중순 着工, 10月 生產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同社는 지난 11月 프랑스의 레이옹 까뮈社와 技術揚携한 바 있다.

違法建築主에 대한 処罰 強化

設計 임의 변경 적발하면 刑事처벌

서울시는 27일, 違法建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違法建築이 적발되면 해당 建築士의 事務所閉鎖와 함께, 建築主에게는 3次의 是正命令을 내린 후 告發해왔으나, 建築主가 建築士도 모르게 임의변경 施工케 하거나 이를 建築士에게 強要하는 社例가 많아 建築主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77년 1월부터 建築職公務員의 不正根絕策으로 마련된 住宅建築許方改善方案이 시행됨에 따라 建築職公務員이 現場에 뜻나게 된 것을 기회로 違法建築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78年10~12月中 건축된 1567棟에 대한 事後占檢 결과 39. 1% (613棟)이 地下層무단 증축, 임의 구조변경 등 違法하였다고 한다. 서울시는 78年 한해동안 建築士处罚 위주로 違法建築을 단속하여 合同事務所를 1~4개 월씩 閉鎖措置했다.

서울시는 建築主处罚強化方針에 따라 이날 各区·出所에 違法建築이 적발되면 是工指示와 함께 建築主를 즉각 告發, 刑事处罚를 받게 하는 한편, 是正期間을 지나도 是正않으면 建築許可를 取消 토록 지시하였다 한다.

公共工事로 얻는 開發利益 社会還元

法案마련, 9月国会上程—建設部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工業團地·產業基地開発 등各種公共工事로 주변지역 土地所有者들이 현저히 受益하였을 때에는 利益의 80%를 国家가 환수하여 「公共福利施設에 재투자하는 開發利益의 社会的 還元에 관한 法案」을 마련, 9月 定期国会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 不動産投機를 억제하기 위해 國土利用管理法·產業基地開發促進法·都市計劃法등에 산재하고 있는 受益者負担金 및 開發利益金利를 단一法으로 묶는다는 것이다.

建設景氣 다소 회복

下半期부터 침체 벗어—建設協 조사

27일, 建設協会가 전국 244개 建設業체와 시멘트合販등 45개 建設関業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금년 建設景氣予測에 의하면 国内建設景氣는 78년의 8.8措置(不動産投機規制) 이후 계속 위축되어 왔으나, 5月 이후부터는 다소 회복, 4.4분기(10~12月)에는 上昇勢를 보일듯 그러나 77·78년(상반기)와 같은 急上昇勢는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同協会가 분석한 79년도 BSI(景氣実査指數)는 금년 1·4분기 106.2, 2·4분기 110.2, 3·4분기 116.7, 4·4분기 108.9로 나타났다.

綜合엔지니어링 設立 봄

최신 기술·공법 도입, 플랜트受注 폐해

28일, 업계에 따르면 南光 建이 오는 6月中 系列企業으로 南光綜合엔지니어링을 발족, 構造·土木·地質·道路·港浮建築·機械·電氣의 全分野를 受主할 수 있는 이른바 綜合 大型建設業체로 發足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 밖에도 漢陽住宅·라이프住宅 등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建設業체의 이와 같은 大型化 추세는 国内外建設市場의 工事規模가 점차 大型화하고 터언키이方式의 技術集約型 工事が 늘어남에 따라 이의 受注能力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현재建設業界에서 이러한 能力を 갖춘 業체로는 現代建設·大林產業·東亞建設·三煥企業·京南企業 등이 꼽히고 있다.

서울都心은 汚染大氣속의 “熱帶의 섬”

변두리보다 7도 높아

28日 海洋產業과 氣象심포지움에서 발표한『서울地方의 都市氣溫分』(金文一外 中央觀象臺 大氣物理責任研究員)에 의하면 서울 中心街 氣溫이 변두리보다 6.8 度 높아 이른바 热島現象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鐸路와 光化門 일대의 商街地域과 서울駅~三角地를 잇는 지역, 그리고 永登浦의 工場 및 商街地域 일대의 氣溫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서울이란 都市에 “高温의 성”이 형성되고 있는게 틀림 없다고 하였다.

热島나 温室效果는 모두 人口過密·大氣污染등 인위적인 도시의 환경 변화를 뜻하며, 안개가 많이 끼고 降雨量이 늘어나는 등 일반적으로 都市人에게 혼한 막연한 症狀等—頭痛, 머리가 무겁고 깨운치 않은 증상, 눈의 피로, 어깨가 무거운 증상, 피로가 가시지 않는 증상, 열줄이 잘 달아오른다. 消化가 잘 안된다. 가슴이 뛰다. 神經痛, 不眠症, 無氣力 등은 모두 生活리듬의 파괴로 초래되는 증상들이다.

콘크리트 펌프카 開發中

5月初 試作品 첫선—三星重工業

三星重工業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개발, 5月부터 市販할 예

정이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油川斐스톤으로 送打設하는 장비로서 日本 IHI技術을 도입, 처음으로 国產화한 것이다. 트럭세시는 8톤 트럭을 이용하였으며 봉을 창작하고 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간당 75m³, 수평 600m, 수직 95m까지 수송이 가능하다.

首都圈備基本法 제정 움직임

8~9月 國際學術大会도—건설부

30日 건설부에 의하면 首都圈整備의 長期 비전을 설정하고 人口 및 產業의 적정 배치, 무질서한 市街의 拡散規制와 土地利用秩序의 확립 등을 위해 年末까지 基本計劃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國土開發研究院에 研究用役을 의뢰했다. 건설부는 이 研究를 지원하기 위해 外國의 首都圈計劃專門家 및 首都建設專門家를 초청 오는 8~9月경 國際學術大会를 개최한 方針이다. 또 海外에 거주하는 都市·環境·建築等 韓国人 專門家들은 이 연구에 참여 시킬 方針을 세우고 誘致交渉에 나섰다.

건설부는 國土開發研究院의 研究結果를 토대로 首都圈整備基本計劃案을 확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首都圈整備基本法案을 마련 오는 81年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5평 이하 아파트 優先

小型一定比率 건설업자에 中型승인

1日 관계 당국에 의하면 廉民住宅不足率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5평 이하 소형주택의 拡大供給이 필요한데도建設業체들은 이같은 소형 주택 건설을 기피하는 경향이어서, 신규로 발행될 住宅建設事業 承認과정에서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도록 강제규정을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현재 25평 이하 주택을 건설동수의 60%이상 차지하도록 그 비율을 조정할 方針이며, 15평이하 주택을 먼저 건설한 업체에 한하여 中型規模의 住宅建設을 허용하며 각종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5평 이하 주택의 건설의 무비율은 공동주택 공급량의 90%까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建築審議業務, 区厅에 대폭 이양

建築許可節次 간소화 위해—서울시

2日 서울시에 따르면 1~5층 美觀地내의 일체의 建物에 대해 本厅에서만 실시하던 審議業務를 지난 1일부터 ① 3~5층 美觀地내 建物, ② 10~50家口 미만의 墙立住宅, ③ 3층~9층 또는 연면적 100m² 이상 300m² 미만의 建物 ④ 地下 2층 건물등에 대해서는 구청에 이양했다.

또 2층까지의 모든 建物 또는 10家口 미만의 墙立住宅은 本厅이나 区厅의 建築審議를 받지 않고도 区厅의 建築許可만으로도 건축할 수 있게 했다.

서울 公共住宅建設 억제

地方產業都市등으로 확산

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서울에 이상 더 새로운 人口流入을 억제하기 위해 公共資金을 投入하는 住公 및 市管住宅建設을 중지하는 대신 浦項昌原龜尾·裡里·麗川·半月 등 地方產

業都市와 水原·城南·大田·原州·晋州·馬山·忠州·全州群山·濟州·木浦 등 21개 地方都市에 小型아파트를 集中的으로 전설, 地方都市 및 據点都市의 住居條件을 서울보다 有利하게 함으로써 住居地域 送好度를 地方都市에 集中도록 하여 서울의 新規人口 流入을 억제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住宅会社는 작년부터 서울地域에서는 아파트建設用地를 買入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工事中인 盤浦·遁村·道谷 지역의 아파트를 끝으로 서울지역의 아파트建設은 마무리치게 된다.

시멘트등 建資材 輸出 再開

올 下半期 貿長計画기준 마련—商工部

5일 商工部에 의하면 작년 품귀소동에 年初에 仮需要까지 겹쳐 需給이 달릴 것으로 예상, 下半期 이후로 미뤘던 鉄筋·시멘트·合板 등이 国内建築景氣 침체로 在庫累積현상이 일어나 上半期中에 輸出을 再開할 方針이라 한다.

道路拡張은 한쪽으로 만

새 都市計画基準 6月부터 施行—建設部

건설부는 15개 항목의 都市計画施設基準을 部令으로 제정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는 ①用途地域別 道路率 ②駅設道路의 拡幅은 片側拡幅의 원칙 ③道路構造의 肢體不自由者를 위한 배려 ④自転車 專用道路나 專用車線 확보 ⑤街角剪除의 기준 ⑥각급 학교의 배치기준 ⑦立体模斷道路의 구조, 기타 都市 壳場, 油類貯茂 및 送油設備, 綜合醫療施設 등의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合板·木材·鉄筋·骨材 등

建築資材需給 계속 下落

建築盛需期를 맞이하고도 景氣가 계속 不振하고 관련 業界의 資金事情이 악화, 최근 합판 철근 목재 풀재 등 主要資材 값이 当局의 行政指導価格을 밀들고 있을뿐 아니라 去來決済方法도 現金에서 어음으로 바뀌는 등 異變을 보이고 있다.

7일 建設協会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合板은 都壳時勢가 行政指導価格보다 221원이 낮은 3,250원이며, 木材類는 輸入原木価의 上昇과는 거꾸로 市中에서 投壳현상, 시멘트는 계속 弱歩合勢로서 서울지구 駅頭在庫는 지난 1일現在 20,505톤으로 늘고 있다. 모래는 上昇하였으나 자갈은 m^3 당 714원까지 下落하여 一部業体가 採取中斷, 鉄筋도 톤당 3000원이, 하락 172,000원이 되고 2~3개월 어음決済로 거래되고 있다.

建築資材 需給事情 好転으로

政府工事 再開—物価對策長管회의

정부는 시멘트 등 建築資材 価格이 安定되고 在庫事情 등이 好転되었기 때문에, 7일 物価對策長管회의를 열고, 지난 4월 1일字로 中断되었던 政府工事發注業務를 再開키로 결정하였다.

海外建設 現地定着方案 마련

技術集約, 受注 활동 方門으로 高建設

약 20일간에 걸쳐 海外建設現場을 둘러보고 13일 귀국한 高在建設部長官은 人力為主로 형성되고 있는 海外建設業을 技術集弱化 및 組織化하여 需要國의 經濟開發計劃에 참여한다는 자세를 長期的인 政策力案을 모색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발생을 부리는 技能人力者에 대해서는 強制遣還은 물론 海外工事에 再就業을 봉쇄하겠다고 말하였다.

建築規制 緩和 檢토중 下半期부터

정부는 78年5月부터 시행중인 商業用 및 大型住宅에 대한 建築規制를 資材事情을 보아 下半期부터 해제할 것을 檢토중이다.

8日 정부관계자는 현재의 建築規制 조치가 작년 봄의 建築資材波動 등과 관련돼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建築盛需期인 요즘 이를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6月末까지 계속되는 建築盛需期의 需給動向을 보아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下半期에나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物価 뛰고 景氣떨어져 4月經濟動向

產業生產·建築도 鈍化

經濟安定化綜合施策이 발표된 지난 4月中 우리나라 경제는 建築活動이 크게 떨어지고 投資 및 輸出入의 증가세가 안정화 시세를 반영, 鈍化됨으로써 景氣가 일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소비자 및 도매물가가 각각 8.9%, 7.4% 올랐다.月中 產業生產은 前月對比 11.4% 증가하는데 그쳐 작년 同期中 20.1%증가 수준에 크게 못미쳤으며, 全國의 建築許可面積은 23.79萬m²로 작년 同期보다 15.4%나 下落하였다.

상업지역 劇場, 病院, 45평에 1대꼴

駐車場法施行令 및 施行規則 마련

지난 4月17일 공포된 駐車場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駐車場設置에 따른 주차장의 規模·駐車料·駐車場管理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商業地域에 신축되는 연면적 300평 이상의 綜合病院·百貨店·劇場 등은 45평 당 1대꼴, ▲ 教會·寺利·空港 등은 60평 당 1대, ▲ 商業地域의 연면적 600평이 상의 一般建築物과 商業地域以外地域의 600평이 상 모든 建築物에 대해서도 120평 당 1대꼴의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시행될 이 駐車場法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一定区域을 駐車場整備地로 告示, 적용하게 될 것인데, 서울의 경우 市廳을 중심으로하여 서울駅 退溪路2街~世運商街~敦化門~西小門으로 있는 구역이 駐車場整備区域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登錄稅 등 減免

최초 入住者만 1.5%로

정부는 서울시내 아파트業者가 부담해온 保存登記登錄稅를 免稅하는 대신 최초 入住者로 하여금 分讓의 1000의 15의 登錄稅를 물도록 하고 이를 6月 1日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아파트業者가 아파트를 新築分讓時 保存登記 登錄稅率 1000의 8을 부담하고 최초 入住者가 다시 移転登記할 때 1000의 30의 登錄稅를 부담하던 것을 아파트業者の 保存登記 登錄稅率 1000의 8은 없애고 移転登記 登錄稅率 1000의 30을 50% 引下하기로 한 것이다.

地下駐車場·消防行政 등 특별감사:

不條理 是正 強力要求—감사원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내 1200大型建物의 地下駐車場施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부분이 허가조건과는 달리 면적이 좁거나 창고나 사무실로 転用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서울시에 대해 이의 시정을 강력 요구했으며 現場監査를 통해 시정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라이온스호텔火災를 계기로 지난주 20명의 特別監査班을 구성, 약 2주간 예정으로 서울시 관계자, 화재전문가들의 지원 아래 消防本部 및 消防署 그리고 大型빌딩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인데, 특히 消防法에 의한 改修命令이 있은 후 時限付延期措置가 찾은데다 再改修命令→點檢→未備된 채 使用許可→火災發生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消防行政의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0年代 아시아 競技, 90年代 올림픽 유치

11개 市都에 綜合競技場계획—政府

17일 정부가 발간한 行政白書에 따르면 市道마다 全國規模의 体育大会가 가능한 綜合競技場을 건립하고, 90年代 올림픽大会誘致를 위한 기반 조성과 80年代 亞洲競技大会의 유치를 목표로 國際規模의 綜合競技場인 南서울 大運動場(서울 잠실)을 80年初까지 建立할 계획이라 한다. 亞洲競技大会는 82년 「뉴델리」에서 개최되며 한국이 유치할 경우 86년에 실현될 전망이다. 또 올림픽은 80년에 「모스크바」, 86년에 「로스엔젤레스」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은 빠르면 80年代末인 88년 開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環境廳 新設 움직임, —總理 직속

예산편성 등 준비 작업年内 完了

정부는 19日 環境廳 발족에 따른 제반 준비를 금년 下半期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초부터는 業務開出한다는 계획아래 이를 위한 본격적인 관련 法規補完 및 設置作業에 나섰다.

정부가 이처럼 環境廳新設作業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公

害問題를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있게 다룰 수 있는 環境廳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朴大統領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 總務處·保社部·法制處·行政改革委員會 등 관계당국은 오는 8月末까지 機構新設의 전제조건인 関係法規 改正補完과 所要予算編成作業등을 끝내고 이를 9月 定期国会를 거쳐 확정지울 계획이다.

중요建材 備蓄 확대 建設業界 促求

盛需期 資材波動 예방 위해

17日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企業經營上의 가장큰 隘路點은 資材求得難에 있었음을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鐵筋을 비롯한 主要建材의 備蓄擴大 및 流通構造의改善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속구하였다.

업계는 특히 금년의 경우, 建設工事의 規模가 大型화되고 있고 公共建物의 着工이 下半期에 集中됨으로써 그 어느해 보다도 資材求得難이 加重될 것을 우려했다.

논·밭·林野, 基地로 变경을 허용

25~35%는 公共用地로 제 공등—서울

서울시는 19日 앞으로 논·밭·잡종지임야 등을 基地로 바꾸는 土地形質變更은 都市整備委員會를 거쳐, 土地所有者에 대해 허용하되, 形質變更保證金으로 평당 5000원씩을 서울시에 預置, 이 가운데 50%는 竣工後, 50%는 竣工後 1년을 경과한 뒤 찾아가도록 했다.

또 開發者가 반드시 인접지와 도로를 연결하고, 어린이公園 등 公共用地 25~35% 부담토록 하는 한편 상하수도설개지 단장 등을 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 날 土地形質變更에 따른 投機와 不實工事を 막기위한 「土地形質變更許可指針」 일부를 변경, 종래 하던 土地使用覺書 등에 대한 形質變更是 일체 不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질서한 開發을 막기위해 ▲ 開發制限区域 綠地地域과 이에 연속한 空地 ▲ 開發制限区域에 접한 風致地區 ▲ 나무가 있는 산지 ▲ 30% 이상의 急傾斜地와 高度 70m 이상의 高地帶에 대해서는 開發을 억제하기로 했다.

大·中小企業 都給領域 구분

建設業法改正方針—건설부

19일 건설부에 의하면 9月 定期国会上程을 목표로 마련중인 建設業法 改正法律案의 글자는, 中小企業 및 地方業體의 育成을 위해 地域과 都給下限線을 명시하여 中央의 大企業이 地方 또는 一定限度 이하의 工事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그 都給領域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 한다 이밖에도 大企業群과 中小企業群으로 구분, 企業內容(財務構造등)을 중심으로한 誠實에 따라 支援施策을 펴 나가기도 했다.

이같은 시책은 비단 国内業體뿐 아니라 海外建設業체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그 具体方案을 마련 중에 있다.